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

김정석**

이 연구는 남성들의 은퇴가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층 부부들의 식사 및 관련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을 다루어 온 많은 연구들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나, 식사준비, 식사행위, 설거지 등의 개별항목을 끼니별로 접근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특성과 함께 부부나 배우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계청이 실시한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4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 사이의 기혼여성들과 그 배우자들의 식생활행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의 식사행위, 식사준비 및 설거지 양상 등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취업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부부의 취업형태를 중심으로 볼 때,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부인만 취업한 상태이다. 은퇴연령층에서 부인만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인만 식사준비 하는 비율은 부인만 취업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도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 또한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의 패턴과 유사하다. 이 비율 또한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 가장 낮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다. 이를 통해 볼 때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해당 연령층 부인들의 비율은 취업상태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이들 행위들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다시 가족 내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가족내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단어: 식사준비, 설거지, 부부취업상태, 성역할, 생활시간조사자료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통계청이 생산한 생활시간 조사자료가 연구자들에게 가용하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삶이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 chkim108@dongguk.edu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여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느니만큼, 연구 대상영역 또한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일상적인 삶의 필수요소인 식사행위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남성들의 은퇴가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층이라 볼 수 있는 50대와 60대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사노동을 다루어 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차성란, 1998; 김효정, 2001;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허경옥, 2004; 김정석, 2005; 손문금, 2005a; 정순희, 2005; 권태희, 2006; 은기수, 2009)과 일부 중첩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을 개별분석항목으로 두고 접근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한다. 또한 식사관련행위를 하루 단위로 통합해서 살펴기보다는 끼니별(여기서는 아침과 저녁)로 접근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에서뿐 아니라 접근방식에서도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추구한다.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분석대상이 무엇이든 개인의 특성을 통해 해당 개인의 시간사용행위를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박충선, 1998; 정경희, 2001; 이종희·이연숙, 2002; 박민자·손문금, 2005; 김진욱, 2006a; 김진욱, 2006b; 김주현, 2007; 박수미, 2007; 양영순, 2007; 손문금, 2010; 차승은, 2010). 가령, 기혼여성의 가사노동내용과 시간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혼여성이 가진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한다. 혹은 개인의 시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부부나 가족의 특성 일부를 고려하기도 한다(조성은·문숙재, 1998; 채로·이기영, 2004; 손문금, 2005b).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원자료에서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일부 부부 및 가족특성을 활용할 뿐이며, 원자료를 가공해 부부나 가족의 특성을 활용한 경우는 드물다.

남편이나 부인의 시간사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부부간 특성이나 배우자 특성 또한 해당 개인의 특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령, 임금근로자 남편을 둔 부인과 비취업남편을 둔 부인의 시간사용은 분명히 다른 양태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은퇴연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를 접근함에 있어, 부부간 혹은 배우자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식사는 아침과 저녁이며, 점심은 제외하기로 한다. 아침이나 저녁과 달리, 점심은 집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아침 및 저녁식사 관련행위만으로도 많은 정보가 산출된다. 식사와 관련된 행위는 식사하기, 식사준비, 설거지의 세 가지 행위로 나누어 접근한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해당 행위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후, 통계모형분석을 실시한다.

II. 자료와 표본분포

이 연구는 한국통계청이 실시한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생활시간조사자료는 전국단위의 표본조사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게 이틀 동안에 걸쳐 일상생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10분 단위의 일지에 기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식사 및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작은 행위들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원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활시간조사자료가 갖는 유용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은 생활시간조사자료 자체가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 부딪힌 제일 큰 제약점은 가구형태와 구성원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자체에 전체 가구구성원에 대한 정보(예, 가구원 구성표)가 없거나 일부 가구구성원(예, 미취학아동의 유무)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분석대상자가 부부가구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가구원이 2인, 동일 가구내 응답자가 2인,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로 파악되는 경우를 부부가구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부부가구를 구성하더라도, 남편이나 부인 한 사람만 조사에 응한 경우는 제외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부가구로 파악되더라도, 남편이나 부인이 가족과 식사를 했다고 했을 경우, 부부끼리 식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원과 식사를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된 남편과 부인 모두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고 했을 경우만 부부간에 함께 식사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실제 자료분석을 해보면 남편은 혼자 아침식사를 했지만, 부인은 가족과 아침식사를 했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부간 식사양상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가족과 식사했다고 한 경우만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한 것이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특정연령의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50대와 60대,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부간의 식사관련행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연령이 남성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5년 정도의 차이를 두기로 하였다. 연령이 70대 이후인 사례를 제외한 것은 조사응답자가 적을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존해 있을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남녀의 하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젊은 부부의 경우 가구내에 미성년자녀와 같은 다른 구성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간의 생활시간을 살피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령대가 부부가구의 식사관련행위를 살피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농가가구만을 다루고 있다. 농가의 경우, 일과 일상생활의 구분이 딱히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의 특성상 남편과 부인이 하루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취업형태, 부부간에 함께 하는 식사행위 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주어진 자료를 부부단위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연령대와 비농가가구에 속하는 개인들을 추출한 후에,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 또 다시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부부가구라면 가구주와 가구주배우자 이외의 가구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된 대상자들의 가구고유번호, 조사요일 등의 정보가 동일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후, 이들을 한 사례로 결합하였다. 따라서 새로 생성된 자료는 특정가구, 특정요일에 조사된 남편과 부인의 일지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례는 1,461건이다.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자료입력단위(case)는 조사대상자 개인의 하루 일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각 조사대상자로부터 두 건의 자료입력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단위로 정보가 이틀에 걸쳐 생성된 모습을 띠기 때문에 각 사례는 해당 부부의 하루 일지에 해당된다. 분석 사례가 당연히 짝수로 나와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홀수이다. 이는 부부간의 일지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남편은 화, 수요일에 부인은 수요일만 일지를 작성한 경우, 부부단위의 자료에서 한 사례가 작성된다. 다음의 <표 1>은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례 중에 평일날 조사된 비율은 59.8%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사된 비율은 각각 21.4%, 18.8%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역면에서 서울 8.5%, 경기도 8.1%, 6대광역시 37.2%, 기타 지역이 46.3%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연령은 50세부터 69세를 이룰 5년 단위로 4등분 하였다. 그 결과 50대 초반의 남편이 20.7%로 가장 적고, 60대 후반의 남편이 28.7%로 가장 많다. 한편, 이들의 부인 연령은 45세부터 69세를 5년 단위로 5등분하였다. 부인들에게서는 50대 후반이 29.9%로 가장 많고, 60대 후반이 9.6%로 가장 적다. 이상과 같은 분포는 대체적으로 부인의 연령이 남편의 연령보다 낮은 것임을 암시한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부인의 교육수준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편 중에서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가

진 비율은 19.2%인데 비해, 부인 중에서 해당 비율은 6.2%에 그치고 있다.

부부의 취업상태는 남편과 부인을 결합하여 파악하는 한편, 남편과 부인 각각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취업여부는 지난 1주일간 유급활동 여부로 판단된 것임을 밝혀둔다. 부부간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둘 다 비취업인 사례가 25.0%, 둘 다 취업한 사례가 33.4%, 남편만 취업한 사례가 31.9%, 부인만 취업한 사례가 9.7%로 나타난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

	부부(%)		사례수	
	남편(%)	사례수	부인(%)	사례수
조사요일				
평일	59.8			874
토요일	21.4			312
일요일	18.8			275
합계	100.0			1,461
거주지역				
서울	8.5			124
경기도	8.1			118
6대광역시	37.2			543
기타 지역	46.3			676
합계	100.0			1,461
부부간 취업형태				
둘 다 비취업	25.0			365
둘 다 취업	33.4			488
남편만 취업	31.9			466
부인만 취업	9.7			142
합계	100.0			1,461
	남편(%)	사례수	부인(%)	사례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34.7	507	56.9	831
임금근로자	34.5	504	21.6	316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30.8	450	21.5	314
합계	100.0	1,461	100.0	1,461
연령				
40대후반	----		16.7	244
50대초반	20.7	302	23.3	340
50대후반	23.5	343	29.9	437
60대초반	27.1	396	20.5	300
60대후반	28.7	420	9.6	140
합계	100.0	1,461	100.0	1,4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5.3	662	69.6	1017
고등학교	35.5	519	24.2	354
대학교이상	19.2	280	6.2	90
합계	100.0	1,461	100.0	1,461

부부 둘 다 비취업한 사례가 25.0%에 이른다든 것은 주어진 연령층에서 남편들의 퇴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은 남편 중에서 비취업자가 34.7%에 이른다든 점에서 다시 확인된다. 부인들의 경우 비취업자는 56.9%, 임금근로자는 21.6%,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해당비율은 21.5%이다. 앞의 <표 1>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범주에서 부인들은 대부분 가족종사자인 반면 남편들은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Ⅲ. 분석

1. 부부간 아침 및 저녁식사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사례 중에 부부가 함께 아침식사를 한 비율은 71.5%,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63.1%로 나타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 각자 혼자서 식사를 하는 비율은 아침에 9.5%, 저녁에 8.1%로 아침과 저녁 모두 낮지 않다.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한 비율을 보면 요일 간 큰 차이는 아침식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저녁식사에서만 발견되는데 주말에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거주지역면에서는 서울거주 부부들이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경기도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남편과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다. 교육 또한 대체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하는 비율이 높다.

부부간 취업상태별로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부부 둘 다 비취업인 경우에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아침이 89.6%, 저녁이 81.9%로 가장 높다. 남편만 취업한 경우와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비율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부인만 취업했을 경우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부부가 함께 할 비율이 앞선 두 경우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는 부인의 취업상태가 부부간 함께 식사하는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과 부인 각각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편이나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비취업인 경우 해당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부간 식사형태(%)

	〈아침식사〉					〈저녁식사〉				
	둘다 안함	부부 함께	각자 혼자서	기타	합계	둘다 안함	부부 함께	각자 혼자서	기타	합계
전체	2.0	71.5	9.5	17.0	100.0	0.9	63.1	8.1	27.9	100.0
조사요일										
평일	1.9	70.7	10.4	16.9	100.0	1.1	61.3	9.3	28.3	100.0
토요일	1.9	72.8	8.0	17.3	100.0	0.6	65.4	5.4	28.5	100.0
일요일	2.2	72.7	8.4	16.7	100.0	0.4	66.2	7.6	25.8	100.0
거주지역										
서울	3.2	57.3	7.3	32.3	100.0	2.4	54.0	12.1	31.5	100.0
경기도	0.8	69.5	15.3	14.4	100.0	0.0	61.9	11.9	26.3	100.0
6대광역시	2.2	69.8	11.8	16.2	100.0	0.9	60.6	8.8	29.7	100.0
기타 지역	1.8	75.9	7.1	15.2	100.0	0.7	67.0	6.2	26.0	100.0
남편의 연령										
50대초반	4.3	65.2	9.3	21.2	100.0	1.7	57.3	7.9	33.1	100.0
50대후반	2.0	70.0	10.2	17.8	100.0	0.6	60.6	6.1	32.7	100.0
60대초반	1.3	66.4	11.6	20.7	100.0	1.0	62.1	10.6	26.3	100.0
60대후반	1.0	82.1	7.1	9.8	100.0	0.5	70.2	7.6	21.7	100.0
부인의 연령										
40대후반	4.1	61.9	11.5	22.5	100.0	2.0	58.6	8.2	31.1	100.0
50대초반	2.4	69.1	8.5	20.0	100.0	0.3	58.8	7.1	33.8	100.0
50대후반	1.4	70.3	10.3	18.1	100.0	1.1	62.2	10.8	25.9	100.0
60대초반	1.3	79.7	9.0	10.0	100.0	0.3	69.3	5.0	25.3	100.0
60대후반	0.7	80.7	7.1	11.4	100.0	0.7	70.7	9.3	19.3	100.0
남편의 교육										
중학교 이하	1.4	70.1	11.8	16.8	100.0	0.6	63.9	8.6	26.9	100.0
고등학교	2.9	69.4	8.7	19.1	100.0	1.3	59.5	9.2	29.9	100.0
대학교이상	1.8	78.9	5.7	13.6	100.0	0.7	67.9	5.0	26.4	100.0
부인의 교육										
중학교 이하	1.6	69.8	10.9	17.7	100.0	0.7	62.0	9.9	27.3	100.0
고등학교	3.1	74.0	7.3	15.5	100.0	1.4	65.5	4.2	28.8	100.0
대학교이상	2.2	81.1	2.2	14.4	100.0	1.1	65.6	3.3	30.0	100.0
부부간 취업형태										
둘 다 비취업	1.1	89.6	3.3	6.0	100.0	1.1	81.9	2.2	14.8	100.0
둘 다 취업	3.7	65.4	9.8	21.1	100.0	1.4	55.1	11.3	32.2	100.0
남편만 취업	0.4	69.1	12.2	18.2	100.0	0.2	61.2	8.8	29.8	100.0
부인만 취업	3.5	54.2	15.5	26.8	100.0	0.7	48.6	10.6	40.1	100.0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1.8	79.7	6.7	11.8	100.0	1.0	72.6	4.5	21.9	100.0
임금근로자	1.4	60.5	13.1	25.0	100.0	0.2	54.8	11.3	33.7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2.9	74.7	8.7	13.8	100.0	1.6	61.8	8.7	28.0	100.0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0.7	78.1	8.3	12.9	100.0	0.6	70.3	5.9	23.2	100.0
임금근로자	2.5	55.4	13.9	28.2	100.0	0.6	49.1	11.1	39.2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4.8	70.4	8.3	16.6	100.0	1.9	58.3	11.1	28.7	100.0

다음의 <표 3>은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한 사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한 경우이며, 부부간 취업상태가 들어간 모형(모형 1)과 남편과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가 들어간 모형(모형 2) 두 가지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한 이유는 부부간 취업상태 변수가 부부 각자의 취업상태를 조합한 결과이므로, 이 둘은 중복적이기 때문이다.

<표 3>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하는가에 대한 로짓회귀모형계수(n=1,461)

	아침:모형1	아침:모형2	저녁:모형1	저녁:모형2
	b	b	b	b
상수	0.753 **	0.306	0.896 ***	0.641 **
요일(준거: 평일)				
토요일	0.087	0.066	0.170	0.162
일요일	0.078	0.037	0.212	0.187
지역(준거: 서울)				
경기	0.773 ***	0.759 ***	0.411	0.417
광역시	0.798 ***	0.726 ***	0.378 *	0.328
기타 지역	1.127 ***	1.057 ***	0.690 ***	0.666 ***
남편연령(준거: 50대초반)				
50대후반	0.068	0.077	0.148	0.147
60대초반	-0.265	-0.266	0.131	0.137
60대후반	0.535 *	0.526 *	0.402	0.407
부인연령(준거: 40대후반)				
50대초반	0.296	0.299	-0.119	-0.129
50대후반	0.331	0.343	-0.162	-0.180
60대초반	0.499 *	0.426	-0.071	-0.136
60대후반	0.326	0.321	-0.089	-0.114
남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237	-0.185	-0.356 ***	-0.310 **
대학교이상	-0.086	-0.035	-0.200	-0.173
부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446 **	0.382 **	0.368 **	0.318 *
대학교이상	0.806 **	0.791 **	0.294	0.266
부부취업형태(준거: 둘 다 비취업)				
둘 다 취업	-1.361 ***	----	-1.263 ***	----
남편만 취업	-1.251 ***	----	-1.002 ***	----
부인만 취업	-1.990 ***	----	-1.589 ***	----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0.726 ***	----	-0.625 ***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0.067	----	-0.354 **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0.885 ***	----	-0.824 ***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0.504 ***	----	-0.522 ***

주: *p<0.10, **p<0.05, ***p<0.01

제시된 <표 3>에 의하면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간에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아침식사에서는 지역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뚜렷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저녁식사에서 이들의 효과는 일부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부부가 함께 하는가에 대해 일관적이고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부부간의 취업상태(모형 1) 및 남편과 부인의 종사상 지위(모형 2)임이 분명해진다.

우선 모형1에 나타난 부부취업상태의 효과를 살펴보자.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가운데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부부가 함께 할 가능성은 부부가 둘 다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남편이나 부인 중 한 사람이라도 취업한 경우에서 낮다. 특히,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할 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아침식사 $b=-1.990$ /저녁식사 $b=-1.589$).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취업하거나 남편만 취업한 경우보다도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할 가능성이 특히 낮음을 보여준다.

남편과 부인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의 효과를 부부별로 따로 살펴본 모형 2에서도 역시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들에게서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아침식사의 경우, 남편이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경우 비취업남편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남편이나 부인 어느 쪽이든 비취업자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가 식사를 함께 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임금근로자 남편이나 부인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취업여부 뿐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식사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2. 아침 및 저녁식사준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가에 이어, 식사준비를 누가 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사례 중에 부인만 식사를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아침식사 84.9%/저녁식사 74.3%). 둘 다 식사를 준비하지 않은 비율은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남편만 준비하거나 부부가 함께 준비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식사준비는 부인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부간 식사준비형태(%)

	〈아침식사〉					〈저녁식사〉				
	둘다 안함	부인만 준비	남편만 준비	부부 함께	합계	둘다 안함	부인만 준비	남편만 준비	부부 함께	합계
전체	9.7	84.9	2.3	3.1	100.0	18.6	74.3	3.8	3.4	100.0
조사요일										
평일	10.1	83.5	2.5	3.9	100.0	16.8	76.3	3.9	3.0	100.0
토요일	9.6	86.2	2.6	1.6	100.0	20.8	72.4	3.8	2.9	100.0
일요일	8.4	88.0	1.5	2.2	100.0	21.8	69.8	3.3	5.1	100.0
거주지역										
서울	21.8	75.8	0.8	1.6	100.0	28.2	66.9	3.2	1.6	100.0
경기도	11.0	78.8	3.4	6.8	100.0	17.8	73.7	5.1	3.4	100.0
6대광역시	8.8	85.5	1.8	3.9	100.0	17.9	74.8	4.2	3.1	100.0
기타 지역	7.8	87.3	2.8	2.1	100.0	17.6	75.3	3.3	3.8	100.0
남편의 연령										
50대초반	13.2	82.1	2.3	2.3	100.0	21.9	72.8	2.6	2.6	100.0
50대후반	12.2	83.4	2.0	2.3	100.0	21.3	72.3	3.2	3.2	100.0
60대초반	9.6	85.1	2.5	2.8	100.0	16.2	75.5	4.8	3.5	100.0
60대후반	5.0	88.1	2.4	4.5	100.0	16.4	75.7	4.0	3.8	100.0
부인의 연령										
40대후반	14.3	79.1	3.7	2.9	100.0	21.3	70.9	4.9	2.9	100.0
50대초반	11.8	83.5	2.4	2.4	100.0	19.1	72.6	4.7	3.5	100.0
50대후반	9.4	85.8	2.1	2.7	100.0	16.9	76.7	3.4	3.0	100.0
60대초반	7.3	87.7	1.3	3.7	100.0	21.0	72.0	2.7	4.3	100.0
60대후반	2.1	90.0	2.9	5.0	100.0	12.9	81.4	2.9	2.9	100.0
남편의 교육										
중학교 이하	8.9	85.0	2.3	3.8	100.0	16.3	76.0	4.8	2.9	100.0
고등학교	12.7	82.1	2.3	2.9	100.0	19.8	72.4	2.9	4.8	100.0
대학교이상	5.7	90.0	2.5	1.8	100.0	21.8	73.6	2.9	1.8	100.0
부인의 교육										
중학교 이하	9.4	85.3	2.0	3.2	100.0	17.6	74.8	4.3	3.2	100.0
고등학교	10.7	81.9	4.0	3.4	100.0	18.9	74.0	3.1	4.0	100.0
대학교이상	7.8	92.2	---	---	100.0	28.9	68.9	---	2.2	100.0
부부간 취업형태										
둘 다 비취업	4.1	94.0	---	1.9	100.0	12.6	82.2	1.4	3.8	100.0
둘 다 취업	14.5	81.1	2.3	2.0	100.0	23.2	70.1	3.7	3.1	100.0
남편만 취업	8.2	88.2	0.9	2.8	100.0	15.9	80.0	1.7	2.4	100.0
부인만 취업	12.0	64.1	13.4	10.6	100.0	27.5	49.3	16.9	6.3	100.0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6.3	85.6	3.7	4.3	100.0	16.8	73.0	5.7	4.5	100.0
임금근로자	12.5	81.9	1.8	3.8	100.0	19.0	73.6	4.4	3.0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10.2	87.6	1.3	0.9	100.0	20.2	76.4	0.9	2.4	100.0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6.4	90.7	0.5	2.4	100.0	14.4	81.0	1.6	3.0	100.0
임금근로자	13.0	74.7	6.6	5.7	100.0	23.7	62.0	8.2	6.0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15.0	79.9	2.9	2.2	100.0	24.5	68.8	5.1	1.6	100.0

요일별로 살펴볼 때, 부인만 식사준비를 한 비율은 끼니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아침식사의 경우 평일보다는 주말에 그 비율이 높지만, 저녁식사의 경우 평일보다는 주말에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주말저녁에 둘 다 식사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거주지역별로 볼 때, 부인만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서울이 가장 낮고, 경기도, 광역시, 기타 지역의 순으로 높아진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이 서울에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부 둘 다 식사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로 연결되어 있음은 흥미롭다. 연령의 경우, 남편이나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아침식사를 부인만 혼자 준비하는 비율은 남편이나 부인이 대학교를 다닌 경우가 가장 높고, 저녁식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중학교이하인 경우에 가장 높다.

부부간 취업상태면에서 부인만 식사를 준비한 비율은 아침이나 저녁식사모두에서 일정한 유형을 보여준다. 부부 모두 비취업한 경우에 부인만 식사를 준비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편만 취업한 경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둘 다 취업한 경우에도 여전히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은 아침 81.1%, 저녁 70.1%로 상당히 높다.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남편이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일 때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에서도 부인이 임금근로자일 때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비취업일 때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5>는 아침식사준비와 저녁식사준비를 부인만 준비하였는가를 로짓회귀분석해 놓은 결과이다. 부인만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확률의 확연한 차이는 거주지역과 부부 취업상태별로 나타난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고, 광역시나 기타 지역에서 해당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취업상태 효과를 살펴보면, 둘 다 비취업한 부부에 비해 남편이나 부인 한 쪽이라도 취업한 부부에게서 부인만 아침식사를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부인만 취업한 부부의 경우, 해당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에서는 남편이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일 때 부인만 아침식사를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부인의 경우, 임금근로자나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에게서 해당 확률이 낮아진다. 이상의 결과들은 취업여성들이 비취업여성들에 비해 아침식사준비를 할 확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표 5> 부인만 식사준비를 하는가에 대한 로짓회귀모형계수(n=1,461)

	아침:모형1	아침:모형2	저녁:모형1	저녁:모형2
	b	b	b	b
상수	1.687 ***	1.180 ***	1.273 ***	1.070 ***
요일(준거: 평일)				
토요일	0.205	0.191	-0.228	-0.231
일요일	0.378 *	0.334	-0.361 **	-0.380 **
지역(준거: 서울)				
경기	0.184	0.153	0.293	0.295
광역시	0.830 ***	0.741 ***	0.453 **	0.413 *
기타 지역	0.962 ***	0.887 ***	0.470 **	0.452 **
남편연령(준거: 50대초반)				
50대후반	-0.071	-0.037	-0.117	-0.110
60대초반	-0.175	-0.142	0.032	0.043
60대후반	-0.068	-0.007	0.051	0.066
부인연령(준거: 40대후반)				
50대초반	0.258	0.240	0.129	0.119
50대후반	0.500 *	0.477	0.294	0.279
60대초반	0.411	0.344	-0.122	-0.167
60대후반	0.648	0.593	0.382	0.353
남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287	-0.221	-0.330 **	-0.293 **
대학교이상	0.410	0.443	-0.217	-0.187
부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320	-0.383 *	0.096	0.055
대학교이상	0.285	0.255	-0.219	-0.252
부부취업형태(준거: 둘 다 비취업)				
둘 다 취업	-1.148 ***	----	-0.672 ***	----
남편만 취업	-0.651 **	----	-0.090	----
부인만 취업	-2.226 ***	----	-1.639 ***	----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0.031	----	0.22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0.794 ***	----	0.566 ***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1.109 ***	----	-1.025 ***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1.286 ***	----	-0.958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저녁식사준비에 초점을 두어 부인만 식사준비 하였는가를 살펴보면, 해당 확률이 대체로 요일, 거주지역, 부부의 취업상태, 남편과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부인만 저녁식사를 준비할 확률은 평일 보다는 일요일에 낮다. 거주지역별로는 아침식사준비와 마찬가지로 광역시나 기타 지역에서 부인만 식사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 부부의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부부가 둘 다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둘 다 취업하거나 부인만 취업한 경

우 부인만 혼자서 저녁 식사준비를 할 확률이 낮다. 특히 부인만 취업한 경우 해당 확률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한편, 부인만 취업을 한 경우 아침식사와는 달리 부인만 저녁식사를 준비할 확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의 효과도 관찰되는데, 비취업 남편을 둔 부인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 남편을 둔 부인들이 혼자서 저녁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 한편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별로는 비취업 부인에 비해 임금근로를 하는 부인 혹은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 부인들이 저녁식사를 혼자서 준비할 확률은 낮다. 특히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부인들에게서는 해당 확률이 확연히 낮다.

3. 아침 및 저녁설거지

다음의 <표 6>은 부부간에 아침식사와 저녁식사후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침식사나 저녁식사에 관계없이,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편만 하거나 부부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난다. 아침식사 설거지를 부인만 하는 비율은 평일 혹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요일별 차이는 저녁식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아침 혹은 저녁식사설거지를 부인만 하는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낮다.

남편과 부인의 연령별로 아침 및 저녁식사 설거지를 부인만 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해당 비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이나 저녁에 관계없이 남편에게서 해당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50대 후반이며, 부인들의 경우는 아침식사 설거지는 50대 초반에서, 저녁식사 설거지는 50대 후반에서 낮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 또한 연령별 분포와 흡사하게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부부간 취업형태 및 남편과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발견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부부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남편만 취업한 경우이다. 즉 남편의 취업에 관계없이, 부인이 취업하지 않는 경우 부인만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부간 식사설거지형태(%)

	〈아침식사〉					〈저녁식사〉				
	둘다 안함	부인만 설거지	남편만 설거지	부부 함께	합계	둘다 안함	부인만 설거지	남편만 설거지	부부 함께	합계
전체	26.4	69.4	3.2	1.0	100.0	28.7	66.5	3.1	1.7	100.0
조사요일										
평일	26.1	68.8	4.2	0.9	100.0	28.1	66.7	3.1	2.1	100.0
토요일	28.5	67.9	2.6	1.0	100.0	29.2	66.0	3.2	1.6	100.0
일요일	24.7	73.1	0.7	1.5	100.0	29.8	66.5	2.9	0.7	100.0
거주지역										
서울	31.5	62.1	6.5	---	100.0	36.3	55.6	5.6	2.4	100.0
경기도	21.2	72.0	3.4	3.4	100.0	23.7	70.3	4.2	1.7	100.0
6대광역시	28.2	67.0	3.9	0.9	100.0	30.4	64.5	3.5	1.7	100.0
기타 지역	24.9	72.2	2.1	0.9	100.0	26.8	69.5	2.1	1.6	100.0
남편의 연령										
50대초반	32.1	66.2	1.0	0.7	100.0	27.2	69.2	2.0	1.7	100.0
50대후반	30.3	64.1	4.7	0.9	100.0	35.0	59.8	3.5	1.7	100.0
60대초반	28.0	68.4	2.3	1.3	100.0	29.0	66.4	3.3	1.3	100.0
60대후반	17.4	76.9	4.5	1.2	100.0	24.3	70.2	3.3	2.1	100.0
부인의 연령										
40대후반	30.7	66.0	1.2	2.0	100.0	27.5	66.8	4.1	1.6	100.0
50대초반	32.9	62.4	4.4	0.3	100.0	30.9	64.4	3.5	1.2	100.0
50대후반	24.7	71.2	3.0	1.1	100.0	32.7	63.4	2.7	1.1	100.0
60대초반	20.0	75.0	4.0	1.0	100.0	25.3	69.0	2.3	3.3	100.0
60대후반	21.4	75.0	2.9	0.7	100.0	20.0	75.7	2.9	1.4	100.0
남편의 교육										
중학교 이하	24.8	71.3	2.3	1.7	100.0	25.4	70.1	3.6	0.9	100.0
고등학교	29.7	66.9	2.7	0.8	100.0	33.1	61.8	2.7	2.3	100.0
대학교이상	23.9	69.6	6.4	---	100.0	28.2	66.8	2.5	2.5	100.0
부인의 교육										
중학교 이하	26.3	70.4	2.1	1.3	100.0	27.2	68.0	3.3	1.4	100.0
고등학교	26.6	66.7	6.2	0.6	100.0	32.2	62.1	3.1	2.5	100.0
대학교이상	26.7	68.9	4.4	---	100.0	31.1	66.7	---	2.2	100.0
부부간 취업형태										
둘 다 비취업	18.4	80.0	1.6	---	100.0	24.9	71.5	1.6	1.9	100.0
둘 다 취업	34.0	63.7	1.6	0.6	100.0	33.0	62.7	2.9	1.4	100.0
남편만 취업	21.7	76.0	1.1	1.3	100.0	23.0	73.4	1.7	1.9	100.0
부인만 취업	35.9	40.1	19.7	4.2	100.0	42.3	44.4	12.0	1.4	100.0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23.3	68.8	6.7	1.2	100.0	29.8	63.9	4.5	1.8	100.0
임금근로자	28.2	68.7	1.6	1.6	100.0	30.0	64.3	3.2	2.6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27.8	70.9	1.1	0.2	100.0	26.0	72.0	1.3	0.7	100.0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 지위										
비취업	20.2	77.7	1.3	0.7	100.0	23.8	72.6	1.7	1.9	100.0
임금근로자	33.5	54.4	9.5	2.5	100.0	36.1	54.1	7.9	1.9	100.0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35.4	62.4	1.9	0.3	100.0	34.1	63.1	1.9	1.0	100.0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부인만 아침식사 설거지를 할 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저녁식사의 경우 남편이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일 때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은 특히 높게 나타난다.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부인이 비취업인 경우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편의 비취업은 남편의 설거지로 연결되지 않은 반면, 여성의 비취업은 설거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부인만 설거지를 한 사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결과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표 7>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가에 대한 로짓회귀모형계수(n=1,461)

	아침:모형1	아침:모형2	저녁:모형1	저녁:모형2
	b	b	b	b
상수	0.861 ***	0.621 **	0.752 **	0.685 **
요일(준거: 평일)				
토요일	-0.068	-0.070	-0.069	-0.080
일요일	0.217	0.195	-0.030	-0.048
지역(준거: 서울)				
경기	0.520 *	0.527 *	0.614 **	0.601 **
광역시	0.331	0.292	0.419 **	0.396 *
기타 지역	0.634 ***	0.632 ***	0.677 ***	0.634 ***
남편연령(준거: 50대초반)				
50대후반	-0.094	-0.080	-0.353 *	-0.346 *
60대초반	-0.008	0.022	-0.059	-0.065
60대후반	0.497 *	0.522 *	-0.022	-0.027
부인연령(준거: 40대후반)				
50대초반	-0.168	-0.191	-0.026	-0.029
50대후반	0.179	0.140	-0.103	-0.094
60대초반	0.033	-0.026	-0.011	-0.042
60대후반	-0.203	-0.235	0.264	0.265
남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292 **	-0.243 *	-0.411 ***	-0.404 ***
대학교이상	-0.257	-0.225	-0.180	-0.141
부인교육(준거: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015	-0.029	-0.117	-0.143
대학교이상	0.064	0.035	-0.020	-0.048
부부취업형태(준거: 둘 다 비취업)				
둘 다 취업	-0.705 ***	----	-0.401 **	----
남편만 취업	-0.070	----	0.156	----
부인만 취업	-1.801 ***	----	-1.159 ***	----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0.320 **	----	0.186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0.541 ***	----	0.671 ***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준거: 비취업)				
임금근로자	----	-1.069 ***	----	-0.820 ***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	----	-1.015 ***	----	-0.825 ***

주: *p<0.10, **p<0.05, ***p<0.01

앞의 <표 7>에서 설거지를 부인만 할 확률을 살펴보면, 이 확률에는 거주지역, 남편의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지역보다는 경기도나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해당 확률이 높다. 남편의 연령대는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침식사의 경우 고령층에서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이 높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층에서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이 가장 낮다.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에서도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역시 부부간 취업상태, 남편 및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아침이나 저녁식사 설거지 모두에서 발견된다.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은 부부 둘 다 비취업한 경우에 비해 부부가 둘 다 취업한 경우나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낮다. 남편만 취업했을 경우는 부부가 둘 다 비취업한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는 아침과 저녁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취업상태의 남편에 비해 임금근로자나 고용주, 자영업자 남편이 있는 경우에 부인만 설거지를 할 확률이 높다. 부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에서는 비취업한 부인에 비해 임금근로나 가족종사자인 부인들이 혼자만 설거지를 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IV. 정리 및 요약

이상에서 준고령층 부부의 아침 및 저녁식사관련행위를 개인적 특성, 부부 및 배우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분석해 보았다. 식사행위비율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특히 배우자의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분석결과를 부부간의 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하는 비율은 저녁보다는 아침이 낮다. 아침, 저녁에 관계없이 부부 둘 다 비취업인 경우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부인만 취업한 경우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크게 낮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은퇴연령층에서 부인만 취업한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아마도 이는 생계를 위해 부인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고, 이들의 직장은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러하다면 통상적인 끼니때를 맞추어 부부가 함께 식사할 가능성은 이들 부인에게

서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식사준비는 대체로 부인 혼자만 하고 있다. 특히 아침식사는 부인만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저녁식사를 부인 혼자만 준비하는 비율은 다소 낮다. 그렇다고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남편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부 모두 저녁식사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녁 식사 준비 또한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역시 부부 둘 다 비취업인 경우에 대체로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 둘 다 취업했을 때에도 부인만 아침과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뿐 아니라, 부인만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부인 혼자서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식사준비는 여성의 일이 되고 있으며, 설령 부인이 혼자서 취업한 상태라 하더라도 식사준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설거지 또한 대체로 부인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은(부인만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아침과 저녁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다. 식사준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설거지의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혹은 남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며, 부부 모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부부의 취업상태별로는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남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보다는 부부 모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들이 설거지를 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들은 4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에 이르는 부인과 그 남편들을 한 단위로 식사행위, 식사준비 및 설거지 등의 식사관련행동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기술해 본 것이다.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하는가, 누가 식사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된다. 취업상태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의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 각자의 취업상태가 차별적으로 이러한 식사관련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같은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특히 부인만 취업한 부부의 경우에도, 부인만 식사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참고문헌〉

- 권태희 (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8: 1-20.
- 김정석 (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김진욱 (2006a) “한국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1999년과 2004년 생활 시간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 _____ (2006b) “한국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김효정 (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83-96.
-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민자·손문금 (2005) “고령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 박수미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여성연구》 72(1): 5-30.
- 박충선 (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2): 30-46.
- 손문금 (2005a)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39-289.
- _____ (2005b)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_____ (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1-25.
- 양영순 (2007)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1-26.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종희·이연숙 (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

- 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정경희 (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56-70.
- 정순희 (2005) “노인의 생산활동수준 및 관련변수의 분석: 한국과 캐나다 비교” 《한국노년학》 25(2): 155-170.
- 조성은·문숙재 (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35-47.
- 차성란 (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39-152.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채로·이기영 (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허경옥 (2004)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51-62.

Having Meals Together? Stories of Couples of Pre-Retirement Age

Cheong-Seok Kim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meal related activities of couples of pre-retirement age in Korea. Using 2004 Time Use Survey of Korea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couple have breakfast and dinner together, who prepares the meal and who does the dishes after meal. Th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as expected, shows the patterns of such activitie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working status of the couple. Currently working men or women are less likely to have meals together nor do participate in preparing meals or doing dishes. Nonetheless, it is apparent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involve preparation and clean-ups regardless of their working status. As a whole, the activities of meal preparation and doing the dishes remains in the domain of women's work while the proportion of married women working outside home is substantial.

Key Words: Preparation of meals, Doing dishes, Working status of the couple, Gender role, Time-use survey